

‘원불교 훈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성우 교무(안암교당)

1년 단위 프로그램을 만드셨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시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저도 교화단을 통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이 정기훈련 11과목으로 교화단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었고, 또 공동교당에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1년간 활용해 본적이 있습니다. 해보면서 느낀 점은 프로그램이 실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프로그램을 만드신 교무님들께서 이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활용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조명규 교무님이 만드신 불공하는 법 영상은 참고로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활용도 높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러한 활용을 거치고서, 다시 수정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1년 돌린 후에는 후속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동에서 1년을 돌린 후에는 다음 해부터 3~6개월 정도씩 염불, 좌선 순서로 프로그램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훈련프로그램은 맛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심화과정이 필요하며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집에서, 상시에 혼자 할 수 있거나 혹은 동지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돌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 > 대표적으로 몇 가지 궁금합니다.

1. 강연 프로그램 – 실습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짧게 발표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잠깐 사이에 강연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순발력 테스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문 봉독이 뒤에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지요? 선택해서 하나만 읽는 건가요?

제언 →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11과목이라고 해서 꼭 하나씩 할 수도 있겠지만 묶어서 할 수도 있을 듯 하고 강연의 경우는 설명해주고, 두 가지(잘 된 예, 잘못된 예)를 시연해주고, 작성하게 하며, 다음 시간에 실제로 같이 해보는 게 어떤지요.

2. 회화 프로그램

회화의 필요성,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을까요?

설교에서 이론 설명을 주로 하셨는데, 여기서 동기부여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제언 → 의견을 더한다면(다른 프로그램들도..)

설교를 통해서 이론적인 면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기부여의 측면을 강조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론보다는 동기가 중요하고 회화를 통해 유익했던 사례나 대종사님께서 회화를 강조하신 법문이나 예화, 그 외에 회화의 실례들 등 이론 설명으로 동기부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론은 간단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정기일기 프로그램

기획의도를 보면서 정확하게 무엇을 기획하신 것인지, 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내용 중 의문사항

1) 껌 한 개를 팔았으면 ‘한 개 팔았음’하고 쓰는 것이 기재이지, 한 개 팔았는데 ‘기분이 좋았다’ 이것은 기재가 아닙니다. ‘Write’가 아닌, ‘Record’입니다.

감정을 쓰는 것은 기재가 아닙니까? 동의하기 힘든 설명으로 다소 주관적입니다.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 주관적인 내용을 그대로 적으라는 것이 아닐까요?

2) 내 심신작용, 일에 대한 생각,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은 심신작용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 심신작용과 처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부처나 중생이나 심신작용은 다 하는 것이니, 같은 것입니까?

부처나 중생은 심신작용부터 차이가 납니다. 심신작용, 처리를 한다는 것이 같을 뿐입니다. 저는 내용 중 관련법문이 너무 어렵고, 길며, 적실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전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문 >

1년 동안 이렇게 교화단 운영을 하면, 분명히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훈련은 훈련원에서 하지. ‘왜 교당에서, 교화단에서까지 해야 하느냐. 우리는 교화단에서 편안하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인정과 법정을 나누고 싶다.’ 이러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